

제9회 산정호수 역사꽃 축제 이모저모

지난 10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개최된 제9회 산정호수 역사꽃 축제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과 참여행사, 전시판매행사, 공연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사진 · 글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산정호수조각공원 개원

산정호수조각공원 개원식이 지난 8일 오후5시20분부터 산정호수관광지 부내 공원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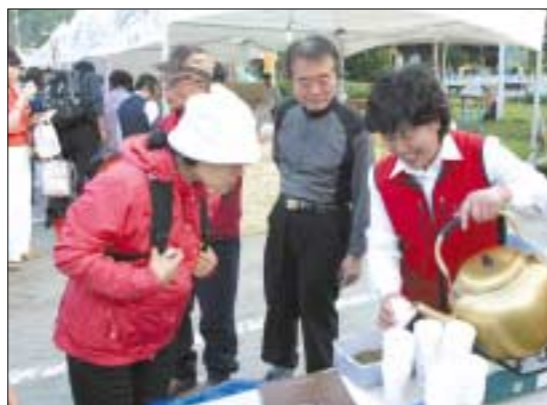
산정호수 분수대

산정호수 분수대와 공예와 병사의 모습이 서산으로 지는 태양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공예와 병사

공예와 병사 산정호수 상가 주민들이 역사로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공예와 병사의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구절초 차 시음회

영종면 구절초 작목반에서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포천시화인 구절초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

이번 행사에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어 참가한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예·강씨 길놀이

공예·강씨 길놀이가 제9회 산정호수 명성산 역사꽃축제 개막을 알리고 있다.

탐방 2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육상부

천봉석 감독

보조경기장 건설로 전국육상 대회 유치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부는 199년 12월 9일 창단된 팀으로 포천시 두 번째 실업팀이다.

당시 이진호 포천군수와 현재 포천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대근 사무국장 노력에 의해 창단된 육상부는 비인기종목이지만 모든 종목의 기초종목으로서 각종 대회에서 높은 점수와 다량의 메달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포천시의 기대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

육상부는 감독 1명 포함 총5명으로 정원 6명에 1명이 미달하고 있다.

시청 육상부는 천봉석(34) 감독과 400M와 400M의 이돈재(23·남), 3000MSC(장애물)의 김미봉(23·남), 400M와 800M강혜민(23·여), 마라톤의 강신해(22·남) 선수로 구성돼 있다.

선수들은 이돈재 선수가 2000년 12월, 강혜민·강신해선수가 2003년 6월, 김미봉 선수가 2005년 1월에 각각 위촉됐다.

천봉석 감독은 직전 부천교육청 순회코치를 역임하다 지난 2003년 2월 부임해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천 감독으로부터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부의 현황과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최근 각종 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이돈재 선수 제8회 전국실업육상 선수권대회 금1, 제3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금1, 제16회 전국실업단체대항육상대회 은1,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은1, 제9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 금1, 제3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은1, 제5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동1, 제17회 전국실업단체대항육상대회 금1 ▶김미봉 선수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동1 ▶강신해 선수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26위, 2005 인천하프마라톤 마라톤 30위 ▶강혜민 선수 제16회 전국실업단체대항육상대회 은1, 제85회 전국체육대회 동1, 제3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동1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이돈재 선수는 고교시절 무명선수를 영입해 포천에서 육성해 성공한 대표적 선수이고, 또 강혜민 선수는 현재까지 400M 고고기록 보유자로 지난 해까지 부진했으나 올해 기량이 좋아지고 있다.

선수들의 경우 기량과 성적에 따라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 포천시 선수들은 공무원 7급 8호봉 수준부터 8급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천 감독은 선수들의 처우에 있어 내년간 계약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업선수의 경우 실력이 우선이지만, 슬럼프기간도 감안한다면 제주시청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처럼 2~3년 정도의 계약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며 “계약기간이 너무 많지 않게 된다면 선수들이 나태해질 확률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15개의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실업팀들은 중 수원시의 경우 100명이 넘는 육상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각 시·군의 역량에 따라 각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천 감독은 포천시의 경우 현재의 시스템이 바람직 하나 최근 우수선수의 영입에 있어 계약금 지급 등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포천의 경우 계약금 없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 대회에 입상했을 경우 30여 만원의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등 포상금의 규모가 작다”며 “선수들의 사기와 성적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 선수들은 현재 포천종합운동장과 왕방산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두어 선수들이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경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가하지만 정작 홈구라드인 포천에서는 경기를 치르는 일은 전무했다”며 “포천 육상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육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 감독은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부 선수들은 프로정신으로 무장한 채 포천의 명예와 육상실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포천 육상의 밝은 미래는 이를 기반으로 저변확대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역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부는 천봉석 감독, 이돈재·김미봉·강혜민·강신해 선수(左부터)로 포천육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산 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닙시용품 포장지류

가공 제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